

4-5-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복음 11:25-27

말씀제목: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천 년 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그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 있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다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부활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에 주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하늘로 데려가신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실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살전 4:13-15)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시는 것은 지난 이천 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무덤에서 진토가 된 잠들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영과 혼을 다시 결합하여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자신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휴거의 때에 살아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사도 바울은 휴거의 소망에 대하여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된 휴거의 날이 대 환란 전에 있을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 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살전 1:10)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살전 5:3-9)

예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에도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기록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거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 3:7-13)

아멘! 할렐루야!